

삼성전자, 보급형 '갤럭시 S23 FE' 글로벌 출시

5000만 화소 렌즈·3배 광학 줌·와이드 센서 등 적용...오늘부터 순차 출시 갤럭시 탭 S9 FE·버즈 FE 시리즈도 공개...버즈는 18일부터 국내 판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FE', '갤럭시 탭 S9 FE' 시리즈, '갤럭시 버즈 FE'로 구성된 새로운 갤럭시 FE 시리즈를 공개했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팬에디션(FE) 스마트폰 '갤럭시 S23 FE'를 선보인다.

팬에디션 모델은 같은 해 출시된 플래그십 'S 시리즈'의 주요 기능은 담으면서도, 사양을 낮춰 가격을 내린 보급형 모델이다. 삼성전자가 차기 플래그십 모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카메라는 5000만 화소 고해상도 렌즈와 3배 광학 줌, 나이트그래피 기능을 담았으며, 갤럭시 S23 시리즈에 있는 와이드 센서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슈퍼 고명암대비(HDR)로 풍부한 색감을 담아 내며, 광학식 손 떨림 보정(OIS)과 동영상 손 떨림 보정(VDIS) 기술로 흔들림 없이 사진·동영상을 출력한다.

163.1mm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담았으며, 주변 조도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비전 부스터'와 시력 보호 기능으로 향상된 게이밍과 동영상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기기 내부의 열을 분산시키는 '베이퍼 챔버' 크기도 키웠다. 4500mAh의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25W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면 30분 만에 0%에서 최대 50%까지 충전할 수 있다.

IP68 등급 방수·방진 기능을 갖춰,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물론, 1m 이상 깊이에 장시간 침수돼도 기기를 보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FE에 쓰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엑시노스 2200과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탑재를 점치고 있다.

제품 내·외장 부품 일부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재활용 알루미늄, 파우더 등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 소재가 적용됐다.

색상은 민트, 그라파이트, 퍼플, 크림, 인디고, 텐저린 등 6가지다.

갤럭시 S23 FE는 이달 5일부터 주요 국가에 순



Galaxy S23 FE | Tab S9 FE | Buds FE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FE 시리즈를 공개했다. 왼쪽 위부터 '갤럭시 버즈 FE', '갤럭시 S23 FE', '갤럭시 탭 S9 FE'.

〈삼성전자 제공〉

차 출시되며, 국내 출시는 미정이다. 가격은 599달러(약 81만 원)이다.

함께 공개한 '갤럭시 탭 S9 FE 시리즈'는 2년 2개월 만에 새로 나온 팬에디션 태블릿이다.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두 가지로 출시된다.

갤럭시 탭 S9 FE 기본 모델은 277mm, 플러스 모델은 315mm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으며, 최대 90Hz 주 사용 자동 보정 기능과 비전 부스터 기능을 담았다. 태블릿과 S펜은 탭 S FE 시리즈 최초로 IP68 등급 방수·방진을 지원한다.

배터리 성능도 개선돼 플러스 모델 기준 한 번 충전하면 최대 20시간까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내장 메모리는 128GB와 256GB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며, 마이크로SD 카드로 최대 1TB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민트, 실버, 그레이, 라벤더 네 가지 색상을 선보이며, 국내 출시는 추후 확정된다. 미국 출시 가격은 499달러(약 67만 원)부터다.

갤럭시 버즈 FE는 강력한 베이스 음으로 깊고 풍부한 소리를 제공하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지원한다.

특정 방향으로 무선 신호를 집중시키는 '빔포밍' 기술을 마이크 3개에 적용했으며,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소음 제거 기술을 더해 더 선명한 통화 음질을 제공한다.

'오토 스위치'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TV 사이 갤럭시 버즈 연결을 자동 전환하며, '스마트싱스 파인드'로 버즈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버즈 FE는 최대 8시간 30분, 케이스는 최대 3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라파이트와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국내 소비자들도 이달 18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11만9000원이다.

/빅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식품부, 우유값 인상에 소비자 부담 가중...할인행사 등 협조 요청

우유 소비감소 대응 방안도 수립

낙농가·유업계 등과 TF 구성

정부가 잇따라 유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해소를 위해 유업계와 유농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유업계, 유농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우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지난 1일부터 흰우유와 유제품 등의 원료인 원유 가격이 오르자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체는 제품 가격을 각각 인상했다.

흰우유 제품 가격은 대형마트에선 900ml 또는

1L 기준 3000원에 근접해졌고, 편의점에선 3000원을 넘게 됐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산 유제품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지금과 같이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할인행사, 묶음 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협 하나마트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묶음 판매와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우유값 인상에 따라 우유를 원료로 쓰는 아이스크림, 빵, 과자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에도 유업체들이 우유 제품가를 약 10% 인

상하자 빵 가격은 6%대, 아이스크림 가격은 20%대로 각각 올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우유값 상승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을 제외하면 원유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과자류의 경우 유제품 원료 비중이 1~5% 수준이고,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유제품 원료는 수입산인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저출산과 멸균유 수입 등의 영향으로 마시는 국산 우유 소비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생산자, 유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맥주 값 오른다... 오비맥주 출고가 6.9% 인상

가정용 카스 500ml 캔은 가격 유지

오비맥주가 주요 맥주 제품 출고가를 6.9% 인상한다.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오비맥주 측은 환율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제품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가격 인상에도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카스 500ml 캔 제품은 현행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빅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충장축제서 수산물직거래 장터

수협 전남본부는 5일부터 7일까지 충장축제 일원에서 제6회 어식백세 전남 제철 수산물직거래 장터를 연다.

강진군수협과 신안군수협, 영광군수협 등 지역 내 12개 조합이 특산물을 판매하며, 행사장은 5·18 민주광장 맞은 편에 마련된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산지 제철수산물 요리시연회 관람과 흥어 등 수산물 무료 시식이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



"춨바람 불땀 전기매트로 따뜻하게"

롯데백화점 광주점 10층 린나이 매장 직원들이 전기매트를 선보이고 있다. 린나이는 따뜻한 잠자리를 위한 다양한 전기매트를 판매 중으로, 오는 9일까지 금액대별로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